

양민혁, 손흥민과 한솥밥? ... “90~95% 수준 진행”

강원 김병지 대표, 토트넘 이적설 설명 영국 BBC 등 “계약 마무리 단계” 보도 고교생으로 K리그 입성 24경기 7골 구단 최연소 출전·득점·도움 등 새 기록



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소스(양민혁 이적설)를 아는 기자분이 500명도 넘을 것”이라며 “팩트는 아직 진행형이고, 90~95%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트넘이 2006

년생 winger 양민혁의 이적을 놓고 강원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양민혁의 메디컬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설을 공개했다. 이어 영국 공영방송 BBC도 25일 “토트넘이 강원FC winger 양민혁과 계약에 근접했다”라며 “양민혁은 오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 즈음해서 이적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영표에 이어 토트넘에 합류하는 가장 최근의 한국 선수가 될 예정”이라

고 덧붙이며 이적설에 신빙성을 더했다. 양민혁은 준프로 신분으로 2024시즌 K리그에 입성, 24경기에서 7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강원 구단 역대 최연소 출전, 득점, 도움 등 다양한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양민혁은 지난달 정식 프로 계약도 따냈다. 김 대표는 “구단에서 보내고자 하는 곳이 있겠지만, 전제조건은 양민혁이 원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며 “이적 기사는 늘 그랬듯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오피셜은 나도 기다려진다”라고 전했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의 김병지 대표이사가 ‘젊은 공격수’ 양민혁(18)의 토트넘 핫스퍼(잉글랜드) 이적설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고, 90~95%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병지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중동 메시’ 남태희, 제주 공격력에 불 지핀다

카타르·일본 거쳐 K리그1 무대 첫 발 뛰어난 연계 플레이 능력에 큰 기대



활약을 이어갔고, 이번에 제주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처음 K리그1 무대를 밟게 됐다.

남태희는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54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트리기도 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홍명보호의 일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경험하기도 했다.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가 ‘중동 메시’로 불렸던 베테랑 공격형 미드필더 남태희(33)를 품었다.

제주는 25일 “남태희가 제주에 입단했다”며 “남태희는 화력 부족에 시달리는 제주의 고민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남태희는 2009년 8월 ‘18세 36일’의 나이로 발랑시엔(프랑스)에서 프로에 데뷔하며 당시 한국인 최연소 유럽 5대 리그 데뷔 기록을 세웠던 주인공이다.

2011년 12월 레퀴아(카타르)로 이적하며 중동에 입성한 남태희는 알두하일, 알사드에서 뛰면서 2016-2017시즌에는 카타르 스타스 리그 최우수선수상(MVP)을 받고 ‘중동 메시-카타르 왕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남태희는 지난해 8월 중동 무대를 떠나 일본 J1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로 이적해

제주에 남태희의 뛰어난 연계 플레이 능력에 큰 기대를 건다. 제주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총 25골을 넣어 12개 팀 중 10위에 그치며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팀 전체 도움이 11개밖에 되지 않아 K리그1 구단 가운데 ‘최저 도움 2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 타이밍이 좋은 남태희가 팀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



김하성, 3년 연속 50 볼넷...팀 12-3 대승 힘 보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왼쪽)이 25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12-3 대승을 거둔 뒤 동료 타일러 웨이드와 자축하고 있다. 김하성은 이날 안타는 때리지 못했지만 볼넷 2개와 3득점을 기록하며 힘을 보탤다. 김하성은 올 시즌 51개째 볼넷을 골라내며 3년 연속 50볼넷 기록도 세웠다.

민헌, 14골 폭발...김민재는 ‘깜짝’ 주장 완장

프리시즌 첫 친선경기 후반 교체 출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2024-2025시즌을 준비하는 프리시즌 첫 친선경기에서 무려 14골을 쏟아냈다.

뮌헨은 24일(현지시간) 트레이닝 캠프가 마련된 독일 테게른제에서 열린 FC 로타흐-에게른과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마티스 텔의 헤트트릭 등을 합쳐 14-1 대승을 거뒀다.

뱅크 콩파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처음 치른 이날 친선경기에서 ‘철기둥’ 김민재는 전반전엔 벤치를 지킨 뒤 후반전부터 출전해 최근 팀에 합류한 일본 대표팀 출신 수비수 이토 히로키와 호흡을 맞췄다.

특히 뮌헨이 공개한 경기 사진에선 김민재는 주장 완장을 찬 장면이 공개된 게 흥미롭다. 콩파니 감독은 후반전에 젊은 유망

주들을 대거 투입해 경기를 펼친 터라 김민재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뮌헨은 아마추어팀인 로타흐-에게른을 상대로 전반전에 7골을 쏟아내고 1골을 내줬고, 후반전에 또다시 7골을 터트리며 화끈한 골 잔치를 펼쳤다. 지난해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도 뮌헨은 로타흐-에게른을 상대로 27-0 대승을 거둔 바 있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I 실시분야 무기체계 2/3급, 정보체계 2/3급

I 응시자격

- 2급 응시자격 기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응시자격 기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지 5년 이내인 사람

I 일시·장소 2024.11. 2.(토) 13:30
용산고등학교 (서울 용산구 소재)

I 접수기간 2024. 9. 2.(월) 09:00 ~ 10. 1.(화) 18:00

I 접수방법 방위사업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s://edu.dapa.go.kr>)

I 문의전화 군 전화) 904-1531/1532/1533
일반전화) 02-2079-1531/1532

·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www.dapa.go.kr)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